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CNBC: 고물가로 미국인 실질 소득 줄어
- WSJ: 연준, 이번 목요일 금리 올린다

[미국 금융]
- WSJ: WSJ: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5% 돌파…최고치
- Bloomberg: 월가 전략가들 "연준 금리 인상에도 주가 상승세 지속될 것"

[미국 생활]
- YahooFinance: 미국 싱글들, 배우자 희망 6자리 연봉 요구

[오일]
- Bloomberg: 유가 급등…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수주일 걸려

[트럼프 행정부]
- CNBC: 미 중간선거로 부채 문제 양당 갈등 커져

[인공 지능]
- Bloomberg: 트럼프,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강력 비난

[미중 관계]
- WSJ: 미·중 'AI 패권' 대립 커지고 있다

[공급망 일일 브리핑]
- KMI 글로벌 해운 공급망 브리핑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CNBC: Inflation is outpacing wage growth again, squeezing Americans' paychecks
고물가로 미국인 실질 소득 줄어

- 물가 상승 속도가 임금 인상 보다 빨라진 상황에서 미국 근로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. 지난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.4% 오른 반면, 같은 기간 임금 상승률은 3.1%에 그쳤다.
- 이 같은 흐름은 이란 사태 발발 직후 휘발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4월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었다.
- 버는 돈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자 미국 가계는 지출 줄이기에 나섰으며, 조금이라도 지출을 아끼기 위해 저가 할인점이나 대형 창고형 매장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.

기사

WSJ: The Fed Is Poised to Raise Interest Rates for the First Time in Years
연준, 이번 목요일 금리 올린다

- 미 연준이 3년 만의 첫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.
- 8월 소비자물가지수(CPI)가 1년 전보다 3.4% 오르는 등 인플레이션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
-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주 목요일인 16일 기준금리를 0.25% 올릴 확률을 85%까지 끌어올리며 지속적인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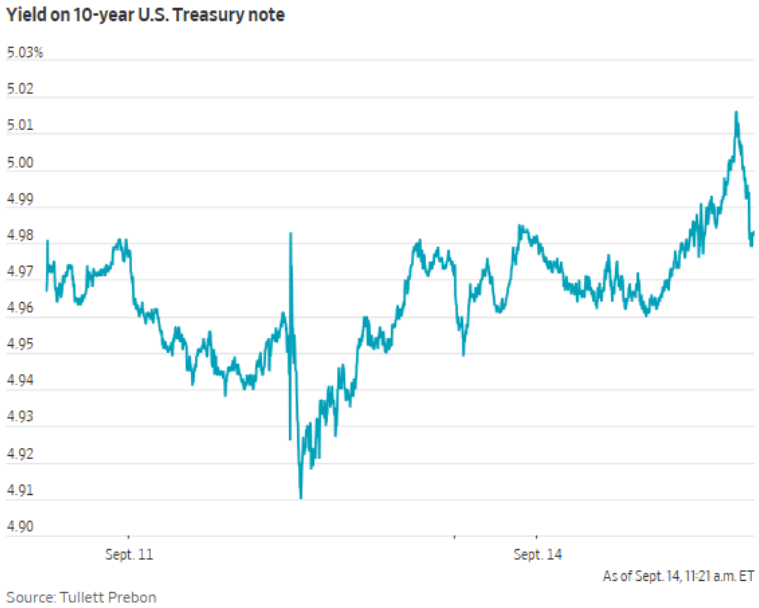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5% 돌파…최고치

-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급속히 치솟으면서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.012%까지 상승해 5% 선을 돌파했다.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.
-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리 상승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다.

- 국채금리는 지난주 예상치를 웃돈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이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 Wall Street Strategists See Stock Rally Surviving Fed Rate Hike
월가 전략가들 "연준 금리 인상에도 주가 상승세 지속될 것"

-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에도 월가 주요 전략가들은 증시의 강세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. 강력한 경제 성장과 견조한 기업 실적이 금리 인상 여파를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.
- 월가 전문가들은 통화 긴축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인 주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지만, 기업 이익이 탄탄한 만큼 하락세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보았다.
- 다만 예상보다 강력한 인플레 쇼크가 발생할 경우 시장 조정 위험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, 금리 상승이 명목 경제 성장(nominal growth)에 기반한 것이라면 주식 시장이 이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진단했다.



기사

[미국 생활]

YahooFinance: American singles now expect partners to earn six figures, with women setting the bar at $172,000 a year
미국 싱글들, 배우자 희망 6자리 연봉 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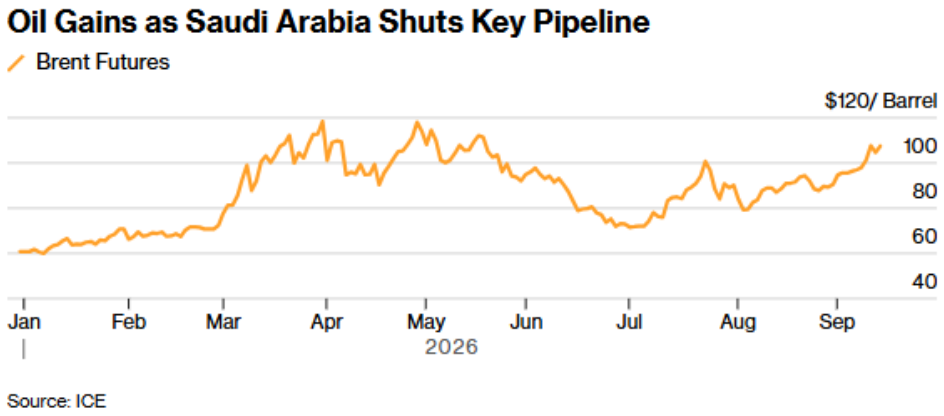
- 미국 미혼 남녀의 데이트 조건에서 상대의 소득이 필수 항목으로 떠오르고 있다. 매력이나 호감도 중요하지만, 이제는 연봉 액수가 교제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다.
- 노스웨스턴 뮤추얼 조사에 따르면 30~45세 밀레니얼 세대는 이상적인 배우자 연봉으로 $160,000를 꼽았다. Gen Z 역시 $135,000를 제시했으며, 여성 응답자 기준으로는 이 수치가 $172,000까지 올라간다.
- 청년층 전반이 6자리 수 연봉을 요구하면서, 고소득은 단순한 가산점을 넘어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il Surges on Report Saudi Pipeline Will Take Weeks to Reopen
유가 급등…사우디 송유관 복구에 수주일 걸려

- 미-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수출이 막힌 상황에서, 이를 우회하던 사우디 핵심 송유관의 복구에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유가가 급등했다.
- 이는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대체 수송로가 차단되었음을 의미한다.
- 앞으로 유가 시장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사우디의 Yanbu 항만에 쌓아둔 비축유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, 송유관이 언제 정상화되는지, 그리고 호르무즈를 통해 몰래 보낼 수 있는 원유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려 있다.



기사

[트럼프 행정부]

CNBC: Why the election could make Washington's looming next fiscal crisis harder
미 중간선거로 부채 문제 양당 갈등 커져

- 미국이 2027년 부채한도 상한선에 도달할 예정인 가운데, 이를 둘러싼 정치적 진통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.

-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,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부도 위기를 막아주는 대가로 정책적 양보를 요구하며 강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.
- 반면, 선거 전 공화당 내부에서도 대규모 지출 감축 없는 부채한도 증액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로 인해 내부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.

기사

[인공 지능]

Bloomberg: Trump Attacks Anthropic CEO Over Call to Slow AI Development
트럼프, AI 개발 속도 조절론에 강력 비난

- 트럼프 대통령이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고 제안한 앤트로픽의 CEO인 Dario Amodei를 비난했다.
-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AI 안전 우려를 "음모론"으로 규정하며, 개발 속도를 늦추면 이득을 보는 것은 "오직 중국뿐"이라고 주장했다.
- 이어 "AI에 필요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강력하고 똑똑한 리더"라며 중국을 압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 입장을 재확인했다.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 정책과 테크 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.

기사

[미중 관계]

WSJ: China Pushes Back Against U.S. on AI Risks
미·중 'AI 패권' 대립 커지고 있다

- 중국 외교부는 "위협론을 유포하고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글로벌 AI 지배구조를 망칠 뿐"이라며 미국의 주장을 반박했다.
- 중국 정부는 해외 세력이 AI를 악용해 공산당 정권 안정, 핵심 인프라, 데이터 보안 및 군사 영역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- 중국은 외부의 견제 시도에는 공동 대응을 강조하면서도, 외부 AI 기술이 자국 시스템 및 안보에 미칠 리스크에 대한 방어 체계와 기술 자립을 지속 추진한다는

입장이다.

기사

[글로벌 해운 브리핑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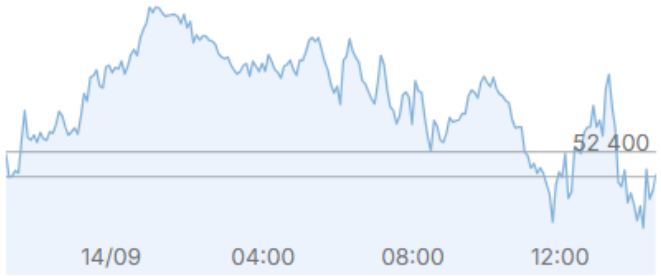
[호르무즈 해협]

- 호르무즈 해협 위기는 이번 주 들어 미·이란 간 직접 군사 충돌 국면으로 한층 격화되었다.
- 9월 13일 보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이란 상선이 피격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.
- 지난주 호르무즈 통과 선박 수는 전주 대비 -26.7% 급감하여 22척 수준으로 떨어졌으며, 브렌트유는 107.6달러(+11.7%), WTI는 102.3달러(+11.8%)로 주간 기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였다.

[홍해/바브엘만데브]

- 홍해·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는 후티 반군의 세력 확장이 이번 주 핵심 신규 위협으로 부상하였다.
- 9월 11일 보도에 따르면 후티 반군이 예멘 홍해 연안을 장악하며 글로벌 해운의 핵심 항로를 위협하고 있으며, 같은 날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 요충지를 통제하겠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고조되었다.
- 9월 12일 보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의 홍해 장악 압박에 대응하여 핵심 원유 파이프라인을 폐쇄하였다고 전해졌으며, 이로써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과 홍해 항로 차단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병목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.
- 유럽 컨테이너 항로 역시 수에즈 운하 및 바브엘만데브 해협 불안 심화로 인해 우회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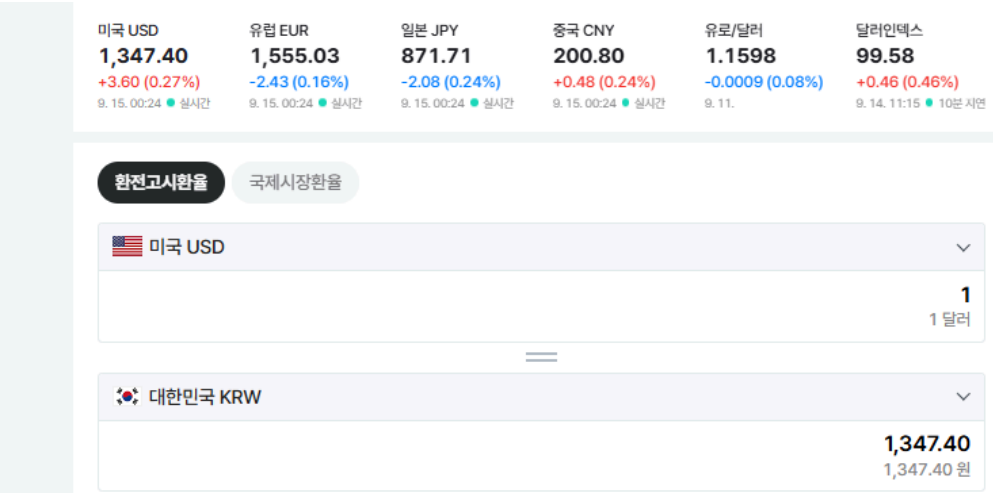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2,369.80	-203.0	-0.39%
US 500	7,607.50	-49.4	-0.64%
Dow Jones	52,358.91	-214.38	-0.41%
S&P 500	7,605.97	-50.88	-0.66%
Nasdaq	26,123.34	-209.70	-0.80%
S&P 500 VIX	17.26	+1.42	+8.96%
Dollar Index	99.293	+0.452	+0.46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1/32	5.351	-0.007
10-Year Note	4.625	-1/32	4.980	0.006
7-Year Note	4.5	-1/32	4.886	0.021
5-Year Note	4.375	-1/32	4.806	0.016
3-Year Note	4.375	-22/32	4.741	0.014
2-Year Note	4.125	0/32	4.649	0.021
1-Year Bill	0	1/32	4.349	0.026
6-Month Bill	0	1/32	4.179	0.026
3-Month Bill	0	0/32	4.022	0.010
1-Month Bill	0	0/32	3.859	0.01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